

함 즐 함 울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롬 12:15

389

2018.1.28

2018년 주님의교회 표어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속으로

(요한복음 3:16-17, 창세기 12:3, 마태복음 9:35)

오늘의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 하였음이라

로마서 8:1,2

오늘의 주요기사

- 2 신년 특집 / 2018년 주제
- 3 신년 특집 / 큐티
- 4 신년 특집 / 교구 변경
- 5 사역 소식
- 6 신입교역자 소개
- 7 목회 칼럼
- 8 아가나들이 / 공동체 소식

교회 일정

- 2/2(금) 금요기도회
- 2/11(주일) 정기당회
- 2/15(목)-17(토) 설날
- 2/14(수) 재의 수요일
- 2/23(금)-24(토) 겨자씨 인도자 수련회

발행인 : 김화수

편집인 : 강진식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편 집 : 함즐함울팀

주님의교회



“하나님이 하십니다”

매서운 한파를 뚫고 뜨겁게 모인 2018년 특별새벽예배

2018년 신년특별새벽기도회가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주제로 1월 8일(월)부터 13일(토)까지 드러졌다. 매서운 한파 가운데에서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기 위해 모인 성도들이 본당을 가득 메웠다. 주차와 간식봉사, 찬양팀 등으로 먼저 나와 섬기신 귀한 봉사자들의 수고와 함께, 걸거나 자전거를 타고 온 성도들,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대중교통으로 온 성도들, 잠이 덜 깬 아이를 업거나 안고 온 부모들, 새벽예배 개근상을 기대하는 아이들의 성화에 끌려온 부모들. 다양한 여건

과 상황 가운데 주님의교회 온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찬양팀의 인도에 따라 잠을 깨우며 주제곡 “문들아 머리 들어라”를 찬양하며 다함께 손을 들어 ‘왕께 만세’를 외쳤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를 외치며 하이파이브로 인사 나누며 하나님께서 우리 삶과 가정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힘차게 선포했다. 김화수 담임목사의 설교를 통하여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음을 재확인하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다. 또한, 자녀를 위한 담임목사의 축복 기도가 매일 진행되었다. 부모님이 함께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기도를 나누며, 모든 자녀들의 마음에 평생에 남을 영적 흔적(스티그마)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별새벽기도회를 마치니 이제야 새해가 시작된 것 같다. 개근상을 기대하는 자녀들의 기대처럼, 하나님께서 올 한해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 준비해두신 은혜의 선물, 감사의 선물, 기쁨의 선물 가득하시길 소망한다.

함즐함울

신년특집 / 2018년 주제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❷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속으로”를 깊이 생각한다

지난 호에 이어 2018년 주제에 대해서 종교개혁의 역사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또 교회 안에서 사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보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살펴볼 기회를 갖는다. <함줄함울>은 총회에서 이 주제에 대해 논의한 자료를 입수, 몇 회에 걸쳐 요약분재하여, 이 주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며, 주님의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이를 실천해야 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 보기로 했다.

2. 교회의 ‘거룩성’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교회의 거룩성은 개교회주의에 빠지지 않고, 전체 교회의 몸을 보살피며, 복음을 수호하고, 선교하는 데서 나타난다. 성도들은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라고 고백한다.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381)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는다”라고 고백한다. 교회의 거룩성은 교회의 통일성, 보편성, 사도성과 분리되지 않는다.

“세례 받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 평등하며 거룩하다 신분의 차이가 없으며 임무의 차이만 있다 성도들의 모든 직업은 소명이며 교회가 세상속에 들어가는 방법이다”

성도의 거룩성은 성(聖)과 속(俗)을 나누는 이분법을 넘어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 속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종교개혁자들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벧전 2:9)에 근거하여 만민제사장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세례 받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 평등하며, 거룩하다. 신분의 차이가 없고 임무의 차이만 있다.

칼뱅은 만민제사장직을 보강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믿음을 돕기 위한 은혜의 수단으로 교직을 제정하셨다고 했다. 말씀, 세례, 성만찬의 목회를 수행할 목사, 성도들의 경건한 삶을 보살필 장로, 복음 진리를 가르쳐 이단을 막는 교사(신학자), 그리고 교회 안팎의 빈자와 약자를 돕기 위해 집사가 필요

하다고 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의 모든 직업은 소명이며 거룩한 직업으로 보았다. 이것은 거룩한 교회가 세상 속에 들어가는 방법이였다.

“종교개혁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사상의 관점에서 신앙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마을 속에 정의와 평화의 사회를 이룩하는 데 기여했다

첫째, 종교개혁자들은 신앙과 선행의 관계를 바로 잡았다. 구원은 믿음으로 획득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샘솟는 감사로 인해 마을 안에서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루터는 구걸행위를 금지시켰고 1522년에 최초의 사회복지법령을 초안하였다. 그후 개신교 국가들은 사회복지 정책을 제도화했다. 칼뱅은 봉사(디아코니아)를 위해 교회의 집사직분을 세웠고, 제네바 당국과 교회가 협력하여 자선단체를 세우고, 병원을 수립하여 제네바의 빈곤 문제를 해결했다. 칼뱅은 제네바 정부의 복지 활동을 기독교인들의 사역으로 인정했으나 교회의 디아코니아는 교회의 본질적 활동이므로 국가의 활동과 구분하여 이해했다.

둘째, 종교개혁자들은 세속교육을 개혁했다. 교육이 없이는 종교개혁의 미래가 밝지 못했다. 그들은 당국을 설득하여 마을에 학교를 세우고, 종교개혁 교리, 학문과목, 사회윤리를 가르쳤다. 루터파 영주들과 시 당국은 개혁자들의 주장에 응답했다. 특히 루터교 교리문답교육은 어린이 신앙교육에 중요한 역할

을 했다. 칼뱅은 교회 교육과 제네바 아카데미라는 두 차원에서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제네바 아카데미는 목사와 기독교 사회의 시민 지도자를 양성했다. 칼뱅의 신학과 인문주의 전통은 서로 모순되지 않았다.

셋째, 칼뱅은 사회 경제윤리에 큰 원칙을 세웠다. 부(富)는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것이므로 이웃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돈은 영적인 것이며 신앙적인 것이다. 칼뱅은 5% 이자를 허용했지만 가난한 사람과 수익이 없는 사람에게 이자를 부과하지 못하게 했다. 상품의 교역은 마을구성원의 영적교제의 표지였다. 따라서 독점과 사재기 행위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 행위라고 보았다. 노동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그 삶을 박탈하는 것이며, 임금을 착취하는 것은 신성모독이었다.

“칼뱅은 부(富)는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것이므로 이웃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교회는 국가가 부자와 세력자로부터 빈자와 약자를 지켜주도록 격려해야 한다

넷째, 종교개혁자들은 국가와 교회의 관계의 질서를 바로잡았다. 교회의 영적통치와 국가의 정치적 통치는 서로 협력관계를 맺어야 한다. 하지만 두 기관은 구분되는 영역이다. 칼뱅은 교회의 말씀, 성례, 영적 양육의 자율성을 주장했다. 그리고 교회가 국가에 대해 네 가지 직무를 가진다고 했다. ① 교회는 법과 정부에 복종하고 통치자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② 교회는 국가가

부자와 세력자로부터 빈자와 약자를 지켜주도록 격려해야 한다. ③ 국가가 참된 종교를 향상하고 교회의 치리에 도움을 주도록 해야 한다. ④ 통치자들이 잘못을 범할 때 교회는 그들을 경고해야 한다.

2019년은 삼일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당시 한국교회는 마을 단위로 삼일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 결과 일제의 박해와 폭압을 받았으나 백성들로부터 민족을 위하는 종교로 존중을 받았다.

“종교개혁은 교회의 거룩성을 추구하면서 세상 속에 하나님 주권을 세우는 일을 하였다 따라서 성도의 거룩성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마을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종교개혁자들도 당시 영국, 스페인, 프랑스, 헝가리, 폴란드를 통치하는 로마 가톨릭 통치자들로부터 각 민족과 백성들의 정치적 종교적 자유와 존엄성을 지지하는 일을 하였다. 1559년 프랑스 개혁교회가 비밀리에 설립되고 갈리칸 신앙고백서가 작성되었다. 네덜란드 개혁파들은 1568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선포하고 독립전쟁을 시작했다. 스코틀랜드 의회는 1560년에 로마가톨릭주의를 금지하고 장로회주의를 유일한 교회정치로 채택하였다. 1620년 영국의 청교도들은 신앙과 종교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에 정착하였다.

이처럼 종교개혁은 교회의 거룩성을 추구하면서 세상 속에 하나님 주권을 세우는 일을 하였다. 따라서 성도의 거룩성은 세상 속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 속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신년 특집 / 큐티

큐티에 대한 모든 것

전교인 대상으로 열린 큐티 세미나

큐티 실천의 동기부여와 함께 큐티의 의미와 필요성 강조 생활 속 전 교인 실천 위한 체계적 프로그램 필요

지난 1월 20일 오전, 대예배실에서 전 교인을 대상으로 한 큐티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큐티는 김화수 제5대 담임 목사가 주님의교회에서의 시무와 함께 강조한 목회의 방침이기 때문에 주님의교회 교인의 관심이 매우 크다. 김화수 목사가 이전 교회에서 꾸준히 큐티를 해왔기 때문에 주님의교회에서도 당연히 역점적으로 실행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기 때문인지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에 걸쳐 진행된 전교인 큐티세미나에 참여한 교인들은 대예배실을 가득 메웠다.

전교인 큐티세미나의 강사로 초청된 이희분 권사(천남큐티운동본부)는 30년간 큐티를 생활화 한 평신도로서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 소중한 경험과 함께 큐티의 의미와 필요성을 한 시간 반에 걸쳐 열정적으로 강연하였다. 모태신앙인으로서 불교

집안에 시집와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이어가기 힘든 상황에서 우연히 친구의 소개로 큐티를 시작한 이 권사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창세기 3장21절)는 말씀 중 ‘가죽옷’이라는 단어를 통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하루를 큐티로 시작하여 큐티로 마무리하는 생활을 30년 동안 매일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강사는 큐티(QT, quite time)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의 묵상을 통해 확인하고, 받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는 수단으로 정의하였다. 신앙생활을 할 때 큐티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복잡한 세상의 일들로 희미해지기 쉬운데 큐티를 꾸준히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순하고 명료하게 정립하는데서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강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명료하게 하는 것을 큐티의 내적 적용이라고 하였고, 여기서 더 나아가 꾸

준한 큐티를 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성령의 이끄심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외적 적용이라고 하였다. 큐티의 중요성은 묵상을 통해 교감한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는데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큐티를 하는 자신뿐 아니라 공동체 나아가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큐티를 생활화 하면서 얻을 수 있는 많은 유익에도 불구하고 큐티를 꾸준히 하는 것은 매우 힘들기 때문에 시간과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강연을 마치면서 강사는 세미나에 참석한 교인들과 질의와 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첫 번째 질문은 큐티의 시간과 분량, 큐티를 하는 장소, 큐티를 적용하는 대상 등 포괄적인 큐티의 방법에 관한 질문이었다. 두 번째 질문은 일상생활에서 억울한 일들을 큐티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었고, 마지막 질문자는 혼자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지적하였다. 첫째 질문에 대하여 강사는 큐티의 시간과 분량은 정해진 것이 없으나 새벽기도 전후가 바람직하고, 큐티의 장소는 방해받지 않는 곳을 권하였고, 큐티의 적용 대상은 차츰 넓어지므로 꾸준한 실천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 큐티는 마음을 지키고 다스리는 과정이므로 억울한 일에서 생기는 분노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며, 나만의 큐티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오류와 편견 때문에 소그룹에서 큐티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고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공부와 병행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강사의 충실한 답변에도 불구하고, 주님의교회에서 큐티가 제대로 자리를 잡아가기 위해서는 겨자씨모임과 성경공부 등 교회의 프로그램과 체계적으로 연계시켜야 하는 준비과정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시간에 걸친 전교인 큐티세미나를 마치며 김화수 목사는 바른 믿음의 삶을 위한 큐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강연 내용을 요약하며 세미나를 마무리하였다.

함줄함줄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비한 큐티상식 일곱 가지 ❶

1. 큐티(QT)란 무엇일까요?

‘Quiet Time’의 머리말을 딴 것으로,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매일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이며,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듣고 묵상하며 삶에 적용함으로써, 삶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고자 하는 경건 훈련입니다.

2. 큐티는 누가 시작했나요?

1882년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후퍼(Hooper)와 손튼(Thornton) 등 몇몇 학생들

이 시작했던 경건 훈련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루 중 일부를 성경읽기와 기도로 보내며 이것을 ‘경건의 시간’(Quiet Time)이라 불렀고, 이후에 이들의 경건 훈련 방법인 ‘경건의 시간’을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1945년 미국에서는 IVF(InterVarsity Christian Fellowship)에서 〈경건한 시간(Quiet Time)〉이라는 책을 발행하면서 큐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1950년대 이후로 빌리 그래함(Billy Graham) 목사 등에 의해 매일 묵상(Daily Devotional) 나눔 운동은 대중적 복음주의

개신교 신앙 훈련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3. 큐티와 성경공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앤드류 머레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는 것 이상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을 연구해서 알고 있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실제적 교제를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으로 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헨리 나우웬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보다도 생각과 묵상으로 이어져야 함”을 강조했습니

다. 말씀에 대한 동의 여부를 따지는 대신 어떤 말씀이 내게 직접 주시는 말씀이며 나만의 개인적 상황과 직접 연관되는 것인지 묵상을 통해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의 가장 은밀한 구석까지 파고 들어오는 그때에야 비로소 말씀은 옥토에 뿌려진 씨앗이 되어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그때서야 우리는 진정 ‘듣고 깨달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계속)

함줄함줄

2018년 우리 교구, 어떻게 바뀌나

2018년을 맞아 교구와 겨자씨 편성이 변경되었습니다. 50:50 정신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여러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교구의 숫자를 줄였기 때문입니다. 새해, 우리의 가족과 이웃이 될 교구와 겨자씨 편성표를 수록합니다.

교구	교역자	연락처	교구분류
1	홍성욱 목사 신주찬 전도사	010-9431-9910 010-4595-8506	송파구(잠실7동 우성APT, 아시아APT), 성남시(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부천시, 군포시, 의왕시
2	최방은 목사 신주찬 전도사	010-9170-5301 010-4595-8506	강남구(대치동, 도곡동, 개포동, 일원동, 수서동, 세곡동), 서초구(양재동, 우면동, 내곡동), 동작구(사당동), 관악구, 구로구, 과천시, 안양시, 수원시, 인천시
3	김대환 목사 손경민 전도사	010-2910-3559 010-2799-5006	송파구(잠실1, 2동 엘스APT, 리센츠APT, 가락동, 문정동 웨미리APT), 종로구, 은평구, 중구,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 일산
4	심홍섭 목사 손경민 전도사	010-2629-1464 010-2799-5006	강남구(역삼동, 삼성동, 청담동, 압구정동, 신사동, 논현동), 서초구(서초동, 잠원동, 반포동, 방배동), 동작구(사당동 외), 영등포구, 양천구, 강서구, 김포시
5	정창화 목사 이 용 전도사	010-6738-7859 010-4024-2320	송파구(신천동 파크리오APT, 송파동, 방이동, 오금동, 마천동, 거여동, 장지동), 위례, 경기도 광주시, 특수(장애인)
6	이은석 목사 이 용 전도사	010-4417-9779 010-4024-2320	송파구(풍납동), 강동구(암사동, 천호동, 성내동, 고덕동, 명일동, 상일동), 광진구, 동대문구, 성동구, 강북구, 성북구,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구리시, 하남시(위례 외), 양주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7	김용웅 목사 이상현 전도사	010-4222-7796 010-5054-0691	송파구(잠실본동, 삼전동, 석촌동, 잠실3동 트리지움APT, 갤러리아APT,레이크APT, 주공5단지), 이천시, 용인시(수지구, 기흥구, 처인구), 화성시, 오산시, 안성시, 평택시
젊은이 (8교구)	허 준 목사	010-5450-5308	20~30대 부부(79년생 이하), 36세~40대 미혼자
청년	문희삼 목사	010-4305-1849	~35세까지 청년(미혼자)

선교 이야기 12

선교의 본질,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정(2)

신약시대에는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하늘의 별 만큼 늘어났으며 종말에는 계시록 7:9-10절에서처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들을 구원하시며 약속하신 복을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교회를 통해 자신이 약속하셨던 복을 점진적으로 성취해오셨고 종말로 그것들을 완전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이시고 하나님이 선교사이시며 이미 종말로 선교를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광의

현장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사역이 왕성히 일어난다고 해서 자랑할 것 하나 없고 사역의 열매가 없다고 의기소침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다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며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시67:1-3) 시편기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임하여서 그 영광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흘러가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의 통로가 되어 그 복이 열방 가운데로 흘러가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하였던 시기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였습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고 그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그 때 동쪽 끝에서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러 왔고 선교는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가득 찰 때 우리는 선교할 수 밖에 없고 기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선교하는 공동체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선교의 본질은 말과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 거룩함이 내 안에 가득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선교사로 나가는 것도 사역지에서 자기에게 비추어진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이 차고 넘쳐 흘러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때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을 통한 선교는 이루어집니다.

해외선교분과위원회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주님이 주신 지상명령인 선교에 대한 비전을 새롭게 하고자 해외선교분과의 제공으로 12회에 걸쳐 선교 이야기를 연재합니다.

사역소식

하남다문화비전교회와 함께한 2018 합동 신년예배



2018년 1월14일 오후1시 하남에 위치한 비전교회에서 주님의교회 주최로 합동신년예배를 드렸다. 이날 신년합동예배는 의료선교부 박준명 집사의 인도로 시작되었으며 서준규 장로의 대표기도로 이어졌다. 최방은 목사는 “살아있음이 희망이다(욥기 1:13~19)”라는 말씀을 통해 현실이 어려울 때 잘못된 선택을 내릴 수 있지만 좋은 기회나 좋은 만남이 있으리라 믿고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내는 선택을 해야한다고 하였다.

캄보디아어, 베트남어, 중국어로 동시통역되는 내내 ‘아멘’의 화답을 접하면서, 초대교회에서 누렸던 기쁨과 은혜가 이 순간에도 펼쳐짐이 느껴졌다.

하남비전교회는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 설립되었고, 이들의 삶을 돕기 위해 전문센터를 같이 운영하고 있다. 15여 년부터 윤대진 목사와 여러 분야에서 돕는 이들의 헌신으로 세워졌으며, 현재는 캄보디아인 신학대학원을 운영할 정도로 성장하고 있다.

성도 모두가 외국인(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다문화교회, 캄보디아교회, 베트남교회, 중국교회, 주일학교

(다문화가정자녀)등 총 5개 예배 부서가 있다.

주님의교회와 비전교회는 10년째 의료봉사, 이미용봉사를 통하여 이들을 위해 아름다운 동역을 이어오고 있다. 최근에는 주한외국인선교부원들이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의 주일예배를 포함하여 다방면으로 이들의 일상생활까지 열성적으로 돕고 있다.

예배 후 비전교회 윤대진 선교사는 “지금 한국의 이주민 선교는 복음사역보다는 여전히 긍휼사역에 머물고 있으므로, 이들이 귀국 후에도 신앙을 지켜 복음전파를 감당하지 못해 안타까움이 크다. 교회는 부족하지 않으나, 이끌어갈 지도자가 없는 것이 가장 큰 선교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 영혼, 한 영혼에 관심을 갖고 말씀과 양육을 통해 이들이 알곡제자와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역을 집중하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 사역지의 중요함을 새삼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2018년 새롭게 시작하는 신년예배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느껴진다. 열방의 모든 민족이 주 안에서 하나되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헌신하기를 기도드린다. **박진현 집사** 국내선교위원회

사역 간증

하나원생 도시문화생활체험을 섬기며

저는 이번에 통일선교위원회에서 시행하는 하나원생 도시문화생활체험의 봉사자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날짜가 다가오니 걱정과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혹시 다니다가 잃어버리면 어쩌나 하는 부담감이 몰려왔습니다. 엄청 추운 아침에 자매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름이 적힌 피켓을 들고 열렬히 환영을 했습니다. 두 자매가 저에게 다가와 반갑게 아는 척을 했습니다. 오히려 왜 이렇게 손이 차냐고 하며 저를 챙기는 말에 순간 저의 걱정은 기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한 자리에 모여서 간단한 담임목사님 말씀과 주의사항을 듣고 도시문화체험을 위해서 나섰습니다.

그 자매들이 가보고 싶은 곳은 시장과 마트였습니다. 그들이 하나원에서 나온 후 삶의 현장에서 가장 필요할 것들을 체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버스와 지하철 타며 환승하고, 보건소에서 건강 체크와 예방접종, 보건증 서류 신청 방법도 배웠습니다. 구청에서 업무와 은행에서 카드로 입출금하는 방법을 알려줄 때는 노트에 열심히 적기도 하였습니다. 마트에서 각종 생필품과 옷, 구두, 가방, 화장품을 구경했는데 자매들의 관심은 본인보다 자기 자녀들 것에 더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구매는 할 수 없고 구경만 해야 했습니다. 자매들과 떡볶이며, 어묵, 순대도 사 먹었습니다. 자매들은 다니는

내내 너무 깨끗하고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다며 좋아하고 맑은 웃음을 웃곤 했습니다. 그런 중에도 사이사이 두려움이 몰려와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하다고 하였습니다. 다행히 그 자매들이 믿음을 갖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힘들 때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라고 권면했더니 그런 것을 기도해도 되냐고 하면서 꼭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자매들이 느낀 것을 말하는데 먼저 말이 통하는 한 민족임을 느꼈고 남한에도 이렇게 따스한 온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였습니다. 이들이 모두 믿음을 가지고 잘 적응하여서 통일이 되면 제일 먼저 복음으로 가서 복음 들고 앞장서 나갈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라도 섬김과 나눔으로 주님 사랑을 전하고 기도로 함께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끝으로 “다시 만나요”라는 북한 노래를 함께 부르는데 우느라고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눈물로 대신하였습니다.

다시 돌아가는 버스에 탑승할 때 우리는 부둥켜안고 다시 보자며 또 기다리겠다고 하며 눈물로 인사를 하였습니다. 이 현실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조만간 이 자매들을 꼭 다시 만나보기를 소망합니다.

전숙정 권사

늘푸른대학 ‘세이브더칠드런’에 생명의 모자 전달

2018년 1월 9일 (사)섬김과나눔 부설 늘푸른대학에서는 ‘신생아 살리기’에 생명 모자 1856개를 전달하였다.

새해 시무예배 후에 1년 동안 교인들이 참여하여 정성스레 만든 신생아 모자를 정리하고 전달하면서 털모자를 만들며 한 코 한 코에 정성을 기울여 만든 모자들이 아프리카 신생아 아이들에게 생명사랑으로 전달되기를 기도하였다.



서울적십자병원 희망진료센터에도 50개의 털모자를 전달했는데, 특히 늘푸른대학 학생으로 89세 되신 김명순 어르신은 370개의 모자를 직접 만들어서 기증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함줄함줄



신임교역자 소개

새로 오신 교역자를 소개합니다

2018년을 맞아 주님의교회에 반가운 분들이 오셨습니다. 새로 오신 교역자 여덟 분을 소개합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격려해 주시고 맞아 주세요.



임경순 목사
청소년사역원, 청소년총괄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주님의교회 공동체의 한 가족이 되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겸손과 사랑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국이 전도사
고등부

하나님이 다시 오게 하신 뜻에 합당하게

2012년, 저는 주님의교회 고등부에서 잠시 새신자반 교사로 봉사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게는 늘 좋은 추억이었습니다. 그런데 5년 지나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될 줄이야, 그것도 부서 담당 전도사로 오게 될 줄이야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왜 이곳에 다시 오게 하셨을까요? 다 뜻이 있으시겠죠. 매일매일 기도하며, 부르신 그 뜻에 합당하게 사역하겠습니다.



이은미 전도사
영아부, 아기정원

주님의 정원 보살피는 작은 정원사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서 '단순한 삶, 이끌려 가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는 주님의 정원에서 작은 믿음의 나무들을 보살피는 정원사입니다. 묘목 같이 작은 나무들이 믿음으로 자라서 의의 나무가 되고 의의 숲을 이룰 것을 꿈꾸며 언제나 성실하게 부르심에 응답하려고 노력합니다. 보잘 것 없는 정원사를 통해 이제라도 일하시고 더 큰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정지혜 전도사
장애인 사역부

주님의 뜻을 기도로 구하고 믿음으로 섬기는 삶

주님의교회 가족들과 함께 주님의 깊은 사랑과 관심이 있는 장애인 사역에 함께 동역하게 되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해 주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을 기도로 구하며 믿음으로 섬기겠습니다.



권효정 교육전도사
어와나 커비, 불티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한 섬김의 자리

요한복음 21장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으로 신학을 시작하게 되었고, 섬김의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외우고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자라갈 어린이들을 사랑하며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이성재 교육전도사
소년1부

어린 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고

제 소년부 시절을 회상하면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의 순수한 마음에 대한 갈망이 생겨납니다. 그렇기에 우리 소년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기대가 됩니다. 나아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는 사랑의 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솔 교육전도사
아기부, 어린이 예친사

믿음의 본보기 되셨던 부모님께 배운 바대로

저는 4대째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목회를 하시며 누구보다 자녀에게 먼저 믿음의 본보기가 되고자 하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자라났습니다. 디모데에게 거짓 없는 믿음을 유산으로 주었던 어머니 유니게처럼 아기부 부모님들께서 믿음을 지키어 순수한 믿음과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아름답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섬기겠습니다.



이지형 교육전도사
젊은이 교구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지금의 한국교회는 믿음의 유산이 잘 전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기독교인의 비율이 낮아지는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도 젊은이들이 잘 양육되어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진다면, 그들로부터 다시금 4대의 신앙이 전수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도록 젊은이교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최선을 다하여 섬기겠습니다.

목회칼럼

두 개의 리스트

저에게는 두 개의 리스트가 항상 있습니다. 그것은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가 아닙니다. 두 개의 기도 리스트입니다. 그 중 하나는 통일선교사역과 관련된 것으로 탈북하여 국내 입국한 하나원생들의 기도 리스트입니다.

하나원부에서는 매월 1회 주일에 하나원에 방문하여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원부가 사역에서 복귀를 하면 저에게 기도카드가 전달됩니다. 저는 기도카드를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어떠한 기도제목들이 있을까요? 거기에는 가슴 아픈 사연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북에 남아있는 부모형제와 가족의 안전과 거기서 배움거나 아프지 않고 행복하기를 간구합니다. 또 중국에 팔려와서 낳은 자식들이 있습니다. 엄마로써 미안함과 함께 다시 만날 날까지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소원합니다. 헤어져서 행방을 알 수 없는 엄마도 있고, 함께 탈북했다가 붙잡혀 복송된 동생도 있습니다. 자신의 몸이 많이 아프고 망가져서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이도 있습니다. 앞으로 잘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을까도 큰 염려거리입니다. 나아가 자신의 신앙생활

이나 선교사님들, 민족 복음화와 통일을 위한 기도제목들도 있습니다. 리스트를 만들면서 저는 이런 큰 고

나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리스트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젊은이교구 중



하나는 탈북하여 국내에 입국한 하나원생들의 기도 리스트이고, 다른 하나는 젊은이교구의 중보기도 리스트입니다. 그들의 걱정과 두려움과 연약함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놀랍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기에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살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통과 소원을 가진 이들이 우리 곁에 현실로 존재하고 있음을 배우게 됩

보기도 리스트입니다. 우리 교회의 어린 가정들에게도 많은 기도 제목

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잉태를 위한 기도, 순산을 위한 기도, 자녀들을 위한 기도제목들이 있습니다. 더러는 태어나면서부터 연약하게 태어난 아기도 있고, 자라면서 희귀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오랫동안 자녀를 기다려온 가정의 임신 소식에 정말 기뻐합니다. 어린 딸이 큰 수술을 받고 건강하게 회복되고 있음에도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그러나 여전히 힘든 싸움 중에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가정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자신들을 세워가는 것을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들을 격려하고 영적으로 잘 돌보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교회 안에 함께 기도해주시는 동역자분들이 있어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셔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놀랍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기에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살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허준 목사

정신학원에 깃든 한국 기독교의 역사 51

재단법인 정신학원 설립(2)

정신학원의 설립 당시 재산은 법인 소유와 미국 북장로회 소유 재산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법인 소유 재산에는 중구 소공동, 동대문구 창신동, 서대문구 만리동, 영등포구 목동 등의 지역에 5,951평의 토지, 중구 소공동의 5층 건물, 종로구 연지동의 강당과 부속 건물 650평, 경북 봉화 금봉광산에 대한 광업권 등이 있었다.

소공동에 있는 5층 건물인 정신빌딩은 1947년 학교 복교 후 미국 북장로회 선교부로부터 6백만 원, 동창회 100만 원, 경기노회 32만 원을 들여 산 것이고, 강당은 1950년 미국 북장로회 선교부에서 200만 원,

그리고 천미례 선생 200불, 겐소 교장 200불, 그리고 김순애를 비롯한 동문들이 기부하여 건축된 것이었다. 나머지 토지와 광업권은 박하성(朴夏成)씨가 기증한 것이다. 이 평가액을 모두 합치면 1억 5천 758만 6,000원이라는, 당시로서도 꽤 큰 금액이 되었다. 그러나 학교의 대부분의 부동산인 교지와 교사는 미국 북장로회 선교부 소유였다.

미국 북장로회 소유의 재산은 종로구 연지동의 교지 4,149평과 그 교지에 세워진 교사 건물 본관인 세브란스관이었다.

이희천 정신여고 교장



해방 후 교장 김필례. 1961년부터는 이사장으로 재임하였다.

아기나들이



이세아 아기

2017년 9월 20일생

1. 세아가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정신을 갖길 기도합니다.
2. 세아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길 기도 합니다.
3. 중심이 올바르게 잡혀 그 뜻이 흔들리지 않는 올곧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빠 이성재 / 엄마 이주연, 2018년 1월 14일 3부 예배



고현서 아기

2017년 7월 17일생

1.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혜롭게 자라기를
2.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건강하기를
3. 밝은 에너지로 자기 자신과 주위를 행복하게 하기를

아빠 고진우 / 엄마 최석원, 2018년 1월 21일 2부 예배



홍해준 아기

2017년 10월 3일생

1.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항상 동행하는 해준이와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2. 함께하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해준이가 되길 바랍니다.
3. 건강하고 지혜롭게 성장하는 해준이가 되길 바랍니다.

아빠 홍승진 / 엄마 이경진, 2018년 1월 21일 3부 예배



최하준 아기

2017년 9월 6일생

1. 아빠엄마가 여지껏 받아온 하나님 사랑을 하준에게도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주세요.
2. 하준이의 짧은 해외체류기간 동안 엄마와 하준의 육신과 영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3. 아빠가 남은 학업생활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용기 잃지 않고 담담함 가질 수 있게해주세요.

아빠 최동찬 / 엄마 김기연, 2018년 1월 21일 4부 예배



양희우 아기

2017년 10월 23일생

1. 주님 안에서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것에 기쁨을 느끼는 아이로 자라게 해주세요.
2. 인생의 갈림길에 있을 때 가장 먼저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3. 건강하고 바른 몸과 마음을 가진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장하게 해주세요.

아빠 양승모 / 엄마 이혜리, 2018년 1월 21일 4부 예배

2018 상반기 주님의교회 대내외 장학금 신청안내

대상 : 고등학생 및 대학생(대학원생 제외)

서류접수 : 1/28(주일) ~ 2/14(수) 교회 사무실 1층(월요일은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문의 : 최명철 안수집사(010-6303-8267) 교회 광고 포스터 및 홈페이지 참조

“삶의 힘이 되는 목소리”

02) 416-5183 오전 9:00~12:00 / 오후 1:00~5:00

주님의교회
전화상담

작은 문제라도 전화주세요. 힘을 얻고 위로를 받습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됩니다.

교회와 신앙에 대해 고민이 있으신가요?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상담이 진행됩니다.

신앙문제 / 대인관계 / 부부갈등 / 자녀문제 / 시댁문제 / 기타문제

늘푸른대학에 오시면
건강강좌 / 상일론 / 연주회 / 영화 / 취미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행복한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2018 늘푸른대학 제10기 학생모집

입학 안내

- 대상 : 만65세 이상 교인 및 지역주민
- 정원 : 270명 (선착순)
- 등록일자 : 2018. 2/4(1차), 2/11(2차)
*주중에는 등록을 받지 않습니다
- 등록장소 : 주님의교회 / 1층 로비 접수처
- 등록금 : 7만 원(1년)

특별활동반 (15개 반)

- ▶ 찬양대 반
- ▶ 고사성어 반
- ▶ 노래교실 반
- ▶ 뜨개질 반
- ▶ 라인댄스 반
- ▶ 바둑 반
- ▶ 사군자 반
- ▶ 서예성경필사 반
- ▶ 생활체조 반
- ▶ 스포츠댄스 반
- ▶ 연필인물화 반
- ▶ 탁구 반
- ▶ 통기타 반
- ▶ 하모니카 반
- ▶ 한지그림 반

개강 : 2018. 3.6(화)
오전10:30 / 중예배실

주님의교회 부설 (사)성김과나눔 / 늘푸른대학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공그 나) 전화 : 02-415-5113 (문의 : 교무처장 / 편성호 안수집사 010-3726-1444)

2017년 항존직 은퇴식

2017년 12월 31일 3부 예배에서는 임기를 마친 항존직 29명에 대한 은퇴식이 진행되었다. 지난 10년동안 교회를 섬긴 이분들에게 감사의 마음과 함께 조출한 기념품이 전달되었다. 이날 은퇴한 항존직은 다음과 같다.

장로 : 박재준, 박중순, 장일형 (3명)

안수집사 : 김건홍, 김봉근, 김운선, 김 혁, 김홍용, 도재성, 문완홍, 박인국, 성규철, 이상록, 이한성
이형구, 장근열, 정영명 (14명)

권사 : 김갑수, 김귀옥, 김운선, 김혜숙, 방해준, 유은숙, 이성연, 이연숙, 정선용, 정숙자, 조혜조,
허건호 (12명)

알립니다

1. 2018년 교구편성 안내

2월 1일부터 8개 교구로 재편성됩니다. 변경된 교구 및 겨자씨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표 : 1층 로비 게시판 / 문의 : 각 교구목사

2. 각 교구 담당목사 안내

1교구 : 홍성욱 목사 2교구 : 최방은 목사 3교구 : 김대환 목사
4교구 : 심홍섭 목사 5교구 : 정창화 목사 6교구 : 이은석 목사
7교구 : 김용웅 목사 젊은이(8교구) : 허준 목사

3. 2월 교구 연합 금요기도회

일시 : 2/2(금) 오후8:00~9:30 대예배실

4. 2018년 새벽기도 헌신자 모집

1년간 교회와 나라를 위해 새벽을 깨워 기도하실 헌신자를 모집합니다.(신청 : 교회 로비)
문의 : 김복수 안수집사(010.3034.0123)

5. 청년부 겨울수련회

일시 : 2/8(목)~10(토) 가평 설곡산다일공동체
문의 : 남혜림 회장(010.9702.1350)

6. 예배찬양 단무팀 모집

사역 : 매주 3부예배(오케스트라) 및 절기찬양예배의 무대 및 연주준비
문의 : 정원영 안수집사(010.5339.6464)